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축하예배 중에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 그동안 연속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하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 송구영선예배를 31일(토) 밤 11시 | 30분에 드립니다. 허리띠를 준비해 주십시오.
- 공동체 직원 종무식이 27일(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 감사 )

장단을 꽂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성탄 감사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 성탄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오르단 중국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성탄절.. 기다림의 의미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 이때가 되면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 있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었는데 그 추억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지 저도 성탄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을 다녀오게 됩니다.

작년과 올 해 모두 명동성당과 명동 거리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사람 없는 횡한 거리와 건물마다 비어있는 상점들, 불꺼진 꿀목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 올 해는 그래도 할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빈 곳이 많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활발하게 손님들이 드나드는 상점들과 길게 들어선 푸드 트럭의 많은 먹거리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외국어 소리가 작년보다 많이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차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던 작년 명동거리는 화려한 트리 장식이 빛났었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올 해의 명동거리는 화려한 트리 장식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빛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표정은 날이 많이 추워도 행복해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1949년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종교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야기 예수를 낳기 위해 마구간을 찾아헤매는 일이 없도록 집안의 청문이 있는 곳마다 촛불을 켜 놓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최대의 명절이며 축제기간입니다. 영국에서 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영업을 못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여왕의 성탄 메세지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영국 전역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고, 교회 성가대원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면 각 가정을 찾아가 캐리를 불러준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세벽송과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에선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대강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에는 가정예배도 드리고 집에 촛불도 켜놓고 연속기도에 참여하는 등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립니다. 을 해의 성탄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나요? 기다림이란...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다림에서 실 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쉽게 명령을 받을 때에 40일 밤낮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이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 을 밝히 보여주고 안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0일 동안의 기다림에 지쳐 설렘과 기대감은 두려움과 답답함,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 성서일기로 보고 있는 다윗왕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수 없이 하였으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성취되기 위한 전체조건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완성형이 아닌 끊임없는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이 루심을 믿는 믿음은 지키고 있나요? 혹시 이미 지쳐서 불평과 원망이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보여주신 처음의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 한주간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

3, 3, 3 그리고 2023년

정 진사집 셋째 딸인 나에게 3이란 숫자는 친숙하다. 우리 가정에도 익숙한 숫자다. 교회가 이전하면서 1998년 서울 종로구 비원 옆 동네 원서동을 떠나 무림리로 이사한 언덕 위 하얀 집이 무림리 333번지였고 세 자녀, 세 아이 엄마,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보다 세 아이 엄마로서 삼삼한 삶이 참 바쁘게 지나갔다. 젊은 날의 나, 가정의 추억과 함께 내 의식 저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삼세번이란 단어가 꿈틀대면서 결혼 36주년을 바라보는 2023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의미를 두고 싶다.

3은 일련의 사건들의 형태가 이뤄지는 데 필요한 최소 숫자이다. 어떤 사건이 한 번이나 두 번 발생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 연속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신호가 된다. 나 또한 개인적 삶에 있어서 숫자 3의 의미를 되새기는 새해이고 싶다. 성경에 3이란 숫자는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 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차례 유혹을 받으신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것은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3은 질자 으로 거룩한 완전수이며, 완성수로서 연합 및 협력, 승인 및 허가의 뜻을 지닌다. 지금은 무림리 333번지가 아니라 무림길 123번지에 살고 있다.

교회가 ‘비상적 시간’을 지나고 나니 많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미어지지만, 세 자녀는 사랑방의 마당을 거닐고 있으니 감사하다.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무림길 123번지의 별명, 미라클 하우스처럼 여전히 나는 끈질기게 움직이며 동시에 꿈을 꾈다.

성경에 수많은 삼총사, 셈과 함과 야벳, 개르손과 므라리, 시울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 집 삼총사들이 믿음이 신실한 기정을 이루길, 미래에 테어날 3+3+3 손주들을 사랑방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들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이웃과 시대 앞에 각자 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방의 2세대로 다양한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끝으로 사랑방 3세대인 손주들 중에 완전과 원성의 의미를 담아 이 시대의 다양한 분야를 리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길 2022년 성탄절에 꿈꾼다.

아직도 발효 중인 삶의 길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40장, 433장, 104장, (128장)

기도 :

성경 : 사무엘기하 1장

제목 : 다윗이 조각을 지어부르고 가르치게 하다  
1-10 한 젊은이가 전현 사울의 죽음 소식 전하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적용: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자.  
11-16 다윗이 젊은이를 죽이다.  
해석: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적용: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자.

17-27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촬의 노래)  
해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왕이라할지라도 벌을 받는다.  
적용: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이 변하더라도 믿음(마음)은 변하지 않아 한다. 예배출석, 현금, 기도를 성실히 하자.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설교자 :
히브리서 1 : 1-2a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115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침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2 : 10 - 12	설교자
성가대 찬양	오 거룩한 땀	사랑방
설교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정태일 목사

### 의탁과 성경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장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듣는 이들  
안내 : 이어람 한태훈 / 봉헌위원 : 박동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진인 육대철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유일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온 백  
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눅  
2:10-11> 천사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분  
혔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예언자, 왕,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들의 세 가지  
직무를 함께 갖고 계십니다. 예언자로서 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  
러내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과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제사장  
으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풀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람에게는 풀어야 할 세 가지 숙  
제가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  
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모든 양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숙  
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윤호중 집사

## 〈 사랑방 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지난 주일에는 꾸러기 부모님과 교사가 만나 꾸러기 한 명 한 명이 일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과 생각 또 마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개인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학교와 가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보배 같은 우리 꾸러기들이 일 년 동안 정말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스럽게 키워주신 부모님들과 가족들, 선생님들,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꾸러기들에게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한 가람이에 이어 하성이도 아파서 학교에 못 왔습니다. 하온이는 지산이와 선생님들을 배려하느라 학교에 안와서 지산이만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을 영상으로 보고, 꾸러기학교를 집으로 꾸며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제 꾸러기학교도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즐겁게 방학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학교 마당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큰 길과 시내에는 내린 눈이 바로 녹았는데 어린이들이 없는 학교 마당에는 며칠째 하얀 눈이 그대로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왔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다가도 위험한 길 등, 하교 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방학할 때까지 기다렸다 내려준 눈이 고맙기도 합니다.

###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들은 지난 학년말발표회를 끝으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고 있지만 성탄 준비와 성탄의 기쁨으로 각자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5일간의 학기말 학부모 면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오로지 한 해 동안 지냈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학교를 신뢰하며 학교에서 하는 일에 열심으로 치지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어린이들의 가정과 공동체 모든 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의 일정은 계속 됩니다. 1월 초에는 2박3일간 한국대안학교 연합학의 컨퍼런스에 공동체교사들이 참석하고 1월 말에는 12일간 어린이학교 6학년들의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며 모두 Happy new year!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방학 중입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 면담을 마치고 방학 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멋쟁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찜질방에 가기도 하고, 롯데월드에 가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2월 첫 주부터는 봄 학기로 보내고 19일에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방학 숙제도 풀듯이 하며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 2022년 1년을 돌아보며

### 〈수요 정오기도회〉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고 여유가 생기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뭘 한 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헛복하게 잘 지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을 돌아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지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낸 시간들이 생각나며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불들고, 익지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를 고르면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꾸리기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끊 4명 있는데 얼마나 쑥 쑥 캐는지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많이 컸습니다. 또 작년에 못 했던 아빠와 캠프도 하고, 여행과 나들이도 많이 나갔습니다. 속상하고, 아픈 날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멋지게 자라줘서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각자에 자리에서 열심히 지내고,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에 항상 감동합니다. 대부분에서 예배위원 연락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해주신 집사님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에 차와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집사님들을 통해 많은 성김과 사랑을 배웁니다. 함께 공동체 일을 하는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지내서 기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서로의 성김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 힘내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길 바라며 사랑방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86장, 393장  
성 경 : 대살로니가전서 5장 12-24절  
말 씀 :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  
1)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와 정부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례가 사람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회의 안정과 종교의 약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세터마을교회>  
1)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오는데 세터마을 식구들이 걱정 됩니다. 건축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식구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정과 일손을 부여주시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대장절 연속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랑방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 성탄절, 성탄전야 모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 < 생활공동체 소식 >

흰 눈이 평평 내려 온 세상이 새하얗게 웃을 입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덜어 깨끗해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눈을 직접 목격하는 둑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공동체 아이들은 눈 썰매를 타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마음껏 한 겨울 눈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장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성탄전야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도 만들고 별도 달고 배너에 전구도 설치하고 모두가 밝힐 초도 만들면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관 중앙에 놓인 아름다운 별과 구유를 보니 마음이 절로 경건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위해 직접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한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드려지는 더 은혜로운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신을 믿습니다

함께사는 이야기

< 장영미 전도사 >